

‘출산율 4년 연속 상승’ 함평군, 맞춤형 지원책 결실

지난달 기준 81명 출생...목표 1.62명 초과달성 기대
최대 1300만원 지원 등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의 출산율이 4년 연속 증가, 출산 친화 지역으로서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7월 기준 함평군의 출생아 수는 81명이 등록됐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2년 0.88명, 2023년 1.22명, 2024년 1.32명, 지난해 1.43명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가 총출한 출산·양육 지

원 정책들이 뒷받침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임신부 등록·관리, 함평성심병원 외래산부인과 운영, 무료 초음파 검사 쿠폰 지원, 임신 축하 선물 지급, 임신부 외식쿠폰 1만원 지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은 임신부와 태아뿐만 아니

라 출산을 준비하는 가구 구성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출산 이후에는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육아용품 지원, 출산 축하 선물 제공, 출산 가정 외식쿠폰 5만원 지급 등을 통해 초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특히 출산 시에는 출산장려금(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과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더해 산후 1년간 최대 1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밖에도 다자녀가정 이동 편의 지원금

300만원 지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30만원 지급 등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출산 친화 정책을 통해 군은 올해 초 예상했던 목표치인 ‘연간 합계출산율 1.62명’을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남오 군수는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한 점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함평=최일환 기자 6263739@gwangnam.co.kr



신생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운영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산림연구원에서 ‘2026년 나주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원(간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나주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상생발전 협력 강화

미래 핵심사업 공유·협력사업 발굴...공감대 형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상생 발전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특별시 산림연구원에서 ‘2026년 나주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원(간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협력사업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공공기관과의 상생 협

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강상구 부시장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인재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정정보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10개 이전공공기관 임원과 간부가 참석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2026 나주영산강 축제’, ‘빛가람 하이볼&비어 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와 영산포읍 환원 추진,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사업 등 주요 시책을 소개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도 폭넓게 논의됐다. 시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에 공공기관의 참여와 후원을 요청했다. 나주문화재단은 시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나주 문화울림’ 사업과 ‘상생문화예술협력 기금’ 조성에 함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농식품인재개발원은 지역 청년농업인

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농 AI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올해 말부터 운영할 계획을 소개하며 교육성 모집과 식비 지원 등 나주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강상구 부시장은 “혁신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에너지특별시 조성 과 인공지능 연구시설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등 미래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장흥, 폭염 대응 농기술 지원
작목별 물관리 요령 등 당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강우 부족으로 농작물의 수분 스트레스가 커짐에 따라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기술지원과 비상 체계를 강화했다.

최근 6~7월 평균기온은 전년보다 0.6도 낮고 평년과 거의 비슷하지만, 강수량이 전년보다 163.6mm, 평년보다 164.9mm 적어 고온·건조한 흐름이 강하며 일조시간도 전년보다 189.1시간 적었으며 7월 말에는 최고 35.1도까지 오르는 폭염으로 벼를 비롯한 과수, 노지채소 등 주요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와 연계해 가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작목별 물관리 요령과 절수형 관개 기술을 집중 지도하고 있다.

벼는 논물 높이를 2~5cm 정도 유지하고 공동급수를 통해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과수와 노지채소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를 이용한 관수와 토양 멀칭으로 수분 증발을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업용수 확보와 현장 기술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

장성군-(주)현농, 농업 미래 ‘상생협력 모델’ 구축

청년농업인 육성·일자리 창출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지역기업과 함께 청년과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남면 소재 ㈜현농을 방문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2007년 설립된 ㈜현농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농업, 바이오농업 등의 분야에서 제품 연구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미생물, 유기농업자재, 농약 등 80여종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계열사인 ㈜현농프래쉬는 연간 1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등 해외 수출이 활발하다. 현농경영연구소, 현농에이아이(AI) 연구소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과 인공지능 기반 농업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명인 ‘현농’은 ‘현명한 농부’를 뜻한다.

김한중 장성군수와 김철홍 ㈜현농



김한중 군수와 김철홍 ㈜현농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

대표 등 관계자들은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농업인 육성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조사항과 상생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후 주요 생산시설을 시찰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이다.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로 파생될 수 있다.

김한중 군수는 “K(케이)-그린바이오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현농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도유망한 청년농업인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성장하는 미래농업 실현을 위한 동반성장의 고삐를 바짝 쥐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향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보성,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상습 체납 엄정 대응...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만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경제 상황,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한다.

주요 업무는 체납 실태조사, 체납 사유 확인, 납부 안내와 독려, 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연계 등이다. 단순 납부 독촉에 그치지 않고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현장에서 확인해 체납자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상습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강화한다. 군은 실시간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단속 차량을 활용해 상가와 아파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주 1회 이상 순회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징수 촉탁에 따라 다 지역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의 체납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액 체납까지 꼼꼼히 살펴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와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현 기자 limth66@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청

장흥군, 수산자원·어업인 소득 증대 기원

감성돔 치어 16만미 방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청정 수산자원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희망했다.

장흥군은 최근 회진면 대리항 인근 해상에서 감성돔 치어 16만미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해양 생태계 복원과 어족자원 증강을 목표로 한 장흥군의 주요 사업으로, 지역 어업인들과 해양 관련 단체 등 40여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군은 2017년 국내 유일의 ‘청정해역 갯벌 생태 산업 특구’로 지정된 해역과 전국 최대 규모의 거머리말(잘피) 서식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무산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양식 방법을 18년간 고수하며 독량만 바다 생태계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감성돔 방류를 통해 어민들이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정착성 어종인 감성돔을 최근 5년 간 약 350만미 가량 꾸준히 방류하면서 자원량 증가, 어가 소득 향상, 레저낚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이번 방류로 인해 장흥군의 청정해역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어민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회복, 낚시관광 수요 증가를 기대한다. 전남통합특별시 대표 해양레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